

디지털 융합 신산업 vs 차세대 컨버전스



미래기술의 핵심으로 IT, BT, NT의 융합산업이 떠오르고 있다. 글로벌 경제 주도권의 지렛대인 융합산업의 정체성과 관련산업 동향과 전망을 들여다 본다. (편집자 주)

1. 서론

융합이란 디지털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유선과 무선, 방송과 통신, 통신과 컴퓨터등 기존의 기술, 산업, 서비스, 네트워크 등의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이들 간에 새로운 형태의 융합 상품과 서비스들이 등장하는 현상을 포괄적으로 의미하고 새로운 첨단 산업과 기존의 산업과 자연스럽게 결합하면서 새로운 신산업을 창출하게 된다.

IT에 기반한 융합기술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다. IT가 우리 생활에 즐거움과 편리를 주는 것에서 생활 속에 파고 들어 삶의 질 향상, 복지의 근본문제에 도전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메가 컨버전스의 흐름은 IT를 고도화할 또 다른 기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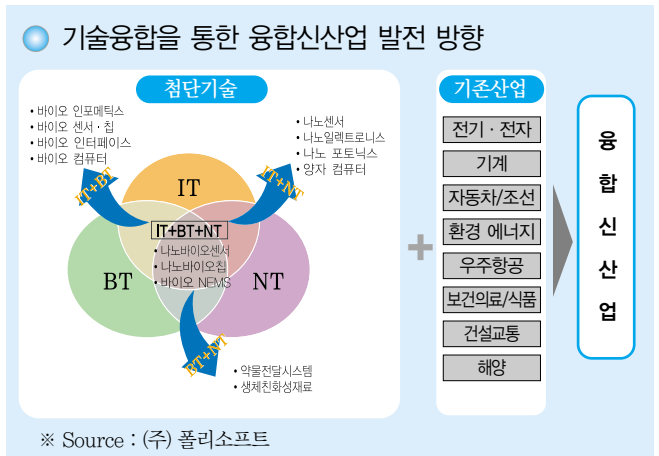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지난 2005년 IT 기반의 융합기술 발전 전략을 수립, 지난해부터 사업화하고 있다. 또 산업자원부는 지난해 디지털융합신산업기술개발 사업 계획을 수립해 올해부터 사업이 진행 중이다. 또 과학기술부는 중복성을 배제하기 위해 범부처적인 융합기술종합발전 시행 계획안을 만들고 있다.

업계동향을 보면 메모리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일본 도시바, 미국의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등이 60~40nm까지 양산하고 있다. SoC 분야에서는 삼성전자·도시바·IBM·TSMC·UMC·차터드반도체 등에서 65nm급 기술 개발에 매달리고 있다.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많이 신경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은나노 제품이나 임프린트형 편광판, 나노잉크전자종이, 특히 CNT를 이용한 디스플레이, 섬유, 운동기구 및 백라이트 유닛, 노트북 외장 등 여러 제품이 나왔거나 개발 중이다.

해외에서는 PDA와 같은 휴대형 기기를 중심으로 한 이러한 기술을 집적한 원격관리 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며, 개개인이 소지한 모바일 헬스케어시스템을 응급의료 체계에 연결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다. 인프라구축을 위해 유럽에서는 다국적 컨소시엄을 구성해 연구를 진행하기도 한다.

프로스트 & 설리반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세계 헬스 시장은 5조 9,000억 달러 규모에 이를 전망이며, 이 가운데 u디지털헬스가 3,800억 달러 규모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u디지털헬스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은 일반 헬스 시장보다 3배이상 높을 것으로 보여, IT, BT, NT 업계 모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기술의 컨버전스 추세, 노령화 등 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융합산업이 미래의 핵심사업으로 떠오르는 조건에서 많은 국내 벤처기업들의 기술개발에 열중하여 나름의 결실을 거두고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대부분의 영역에서 선진국과 기술 격차가 적지 않다. DNA 칩의 경우 칩 제조에 대한 원천기술의 거의 선진기업이 독점하고 있다. 융합부품 전문 벤처기

업들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지만 세계 유수의 선진 기업들에 비해 그 규모가 너무 작고 여전히 영세한 형편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정부의 지원정책이 산업의 발전에 주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2005년까지 세계 3위권의 융합기술 강국으로 도약, 전 세계 융합기술 시장 중 5%이상 점유'를 목표로 융합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IT, BT 분야의 경우 P-라이프케어 서비스 플랫폼 개발을 목표로 하는데, 이는 비만, 스트레스 등 건강상태의 측정, 암, 만성질환 검사, 유해생활환경 감시 등을 위한 개인 맞춤형 플랫폼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술개발 로드맵의 주요 내용은 건강 모니터링 시스템, 질병 모니터링 시스템, 안전환경감시 시스템, P-라이프케어 시스템 등 네가지 시스템과 바이오센스칩 모듈, 질병 스크리닝 바이오센스칩, ROIC (Read Out Integrated Chip) 통신집적 바이오센스칩 등 아홉 가지 제품을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또한, 융합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R&D센터 구축, 글로벌 표준 선점, 인력양성 등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실버 라이프케어, 의료정보화기반 홈네트워크 등 융합기술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융합신산업은 디지털 메카에이전트를 비롯하여 u-Health Wear, u-Vehicle 전자, 디지털 환경 및 에너지, 그리고 디지털 신기술 융합가전이라는 5가지 영역으로 구분되며, 모든 분야가 디지털전자 기술을 중심으로 주요 산업의 영역이 융합되면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가고 있다. 「BINT관련 신기술 제품의 국내의 동향과 전망」 제하의 (주)폴리소프트 보고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디지털 메카에이전트는 기계 산업에 IT, NT, BT 기술이 더해져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기능을 내는 기계전자 모듈을 의미한다. 인공 심장, 인공 손, 재난극복 산업용 시스템, 미세 부품제작용 툴과 같이 인간 주위에서 인간을 보조함으로써 인간 활동의 능력과 영역의 확장을 지원하는 제품이 출시되고 있다.

둘째, 디지털 기술에 의료 및 웰빙산업이 접목된 u-Health Wear는 주로 바이오분석기기의 핵심모듈로 상품화된다. 극

미량의 바이오 물질을 통해 질병인자와 환경유해성분 검출을 가능케 해 인간의 종합적인 건강 상태를 진단한다.

셋째, u-Vehicle 전자는 디지털 기술과 자동차 및 선박 산업의 조우이다. 자동차 및 선박에서 디지털 기술들을 이용하여 충돌 회피, 운전자 안전과 편리 지원, 차량 내 통합 네트워크, 지능형 자가진단, 친환경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다.

넷째, 디지털환경 및 에너지는 국제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원유와 원자재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그 중요성이 매우 크고 빌트인 타입 광전변환소자, 친환경 미래 광원소자, 디지털환경경지 소재를 바탕으로 고효율 신조명, 대면적 태양광발전기, 초박형 나노냉각장치가 기대되고 있다.

다섯째, 디지털 기술과 가전이 접목된 디지털 신기술 융합 가전은 소비자와 사용자에게 육체적 안락함과 정신적 행복감을 동시에 제공한다. 가까운 미래에 두루마리 TV나 생체진단 냉장고와 같이 지능형, 환경형, 웰빙형의 다양한 가전기들이 출시될 전망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융합기술 분야의 국내 기술수준은 아직 선진국의 70~80%정도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국내의 산업화 역사가 비록 선진국들에 비해서 짧아도 그 동안 괄목할 만한 경제 발전을 이룩해 온 국민들의 저력과 세계적 수준의 IT 인프라를 잘 활용해 나아간다면, 융합 신상품의 차세대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이 선발자로 나설 수 있을 것이다.

2. 융합산업 해외동향

미국은 IT와 BT 그리고 NT의 융합에 국가 연구개발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몇 년 동안 동결됐던 국가 R&D 예산은 융합신산업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증액하여 2007년에는 2006년보다 2.5% 증가한 1,370억 달러로 확정하였다.

미국 정부는 융합신산업의 근원이 되는 융합기술의 조기 선점을 위해 융합기술과 기초과학을 균형 있게 육성 하는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IT 분야는 무선통신, 센서 보안, 유비

쿼터스 컴퓨팅 · 홈 네트워크 · 음성 및 문서 인식 등에 주력하고 BT분야는 신약개발, 유전자과학, 단백질 과학, 질병 역학 등에 집중하고 있다. 또 NT분야는 IT와 BT가 융합된 나노바이오공학과 바이오 인포매틱스 등을 주로 지원한다.

질병진단, 우주탐사, 국토방위관련 기술, 친환경에너지 등에 활용될 나노, 바이오 융합기술 개발에 주력하는 한편, IT와 NT, BT가 결합된 고속 질병진단시스템, NT와 IT가 결합된 고출력 레이저, 미 항공우주국(NASA)의 우주 생명체 탐사를 위한 탄소 나노튜브를 이용한 바이오센서개발 등의 성과를 이뤘다.

미국정부의 융합신산업 발전 정책은 'NNI(National Nanotech Initiative)이다. NNI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 유지를 위해 기술개발에 집중 지원하면서 나노기술 연구기반 시설, 인재육성 등의 인프라 구축과 연구개발 결과의 기술사업화 촉진 등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이 분야에만 2006년 10억 5,000만 달러의 예산을 지원했다.

또한 미국 연방정부는 2007년 바이오 및 의학 분야를 최초로 공학과 생명과학 등의 융합기술에 10억 5,900만 달러의 예산을 지원할 전망이다.

한편 일본은 디지털로 패러다임이 옮겨지면서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90년대 초반 버블 경제의 붕괴로 10년 동안의 불황에 빠졌던 일본경제가 디지털전자산업을 밑거름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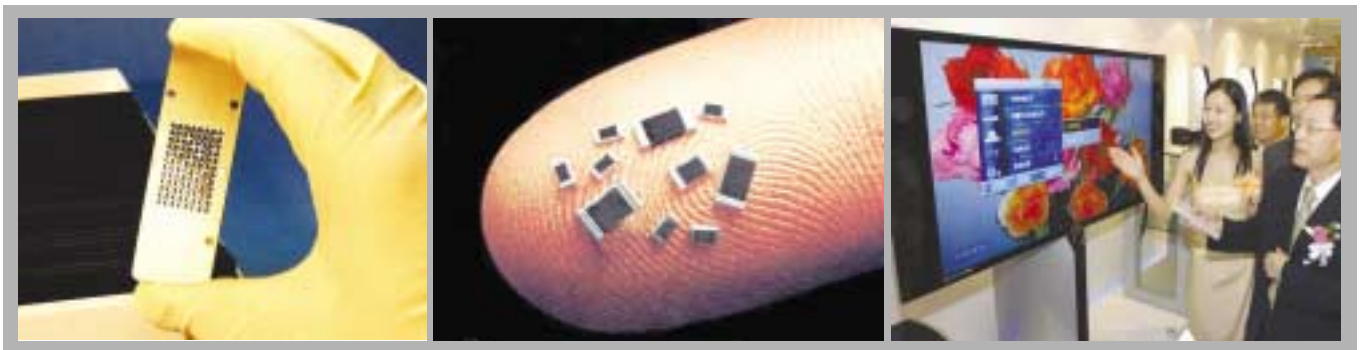
일본 정부도 융합신산업 시대에 다시 주도권을 잡고자 과감

● 주요 국가별 융합신산업 추진 정책

국 가	정 책	예 산	주요 내용
미국	NNI(National Nanotechnology Initiative)	10억 5,900만 달러(2007년)	나노 기술을 기반으로 IT와 BT가 결합된 신기술 개발
일본	신산업 창조전략	873억 엔 (2005년)	연료전지, 정 보가전, 로봇, 콘텐츠, 헬스케어, 환경 및 에너지, 아웃소싱 서비스 등 7대 신성장산업 육성
EU	CTEKS(Converging Technologies for the European Knowledge Society)	678억 유로 (2007~201 3년)	보건, 바이오, 정 보통신기술, 나노 및 소재, 에너지, 환경 및 기후변화, 운송 및 항공기술, 사회경제학 및 인문학, 우주 및 보안기술 등 9개 중점분야에 대한 연구
대만	첨단산업 육성전략	10억 달러 (2006~2010년)	나노기술, 로봇, RFID, 전자종이, 자동차 전자부품 홈용, 토메이션 등 6개 산업 육성

히 범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융합신산업 정책은 2004년 5월 기초가 마련된 '신산업 창조전략' 이다.

일본정부는 디지털 이노베이션과 시장창조의 선순환 확대를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IT, BT, NT 등 신기술 융합 혁신을 통해 일본기업이 경쟁우위를 갖고 있는 7대 신성장산업을 집중 지원하는 것이다. 일본 정부가 정한 7대 신성장산업은 연료전지, 정보가전, 로봇, 콘텐츠, 헬스케어, 환경 및 에너지, 아웃소싱 서비스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선정 기준에 대해 ① 중장기 발전 가능성, ② 내수 주도의 성장에 기여, ③ 소비재에서 생산재,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대도시에서 지방으로 이어지는 파급효과, ④ 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인 분야를 꼽았다. 특히 7대 신성장산업은 기존에 일본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산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분야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일본 정부는 7대 신성장산업의 시장 확대 효과는 해당 분야 뿐 아니라 이를 지원하는 주변산업에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2005년에만 7대 전략산업에 873억 엔을 지원하였으며 예산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광범위한 융합신산업 전략을 펴는 유럽 연합(EU)은 융합신산업 분야에서도 독자적인 발전 방안을 갖고 있다. EU는 미국이 잇달아 융합신산업 관련 정책을 내놓자 이에 뒤지지 않기 위하여 미래기술 예측그룹의 연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미래기술 예측 위원회를 구성했다. 그 결과가 CTEKS(Converging Technologies for the European Knowledge Society)이다.

이 위원회는 2004년 9월 1차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IT, BT, NT에 인지과학과 인문사회과학을 광범위하게 추가하였다. CTEKS는 '유럽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경쟁력 있는 지식기반 경제로 만들자'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보건, 바이오, 정보통신기술, 나노 및 소재, 에너지, 환경 및 기후변화, 운송 및 항공기술, 사회경제학 및 인문학, 우주 및 보안기술 등 9개 중점분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EU는 내년부터 오는 2013년까지 총 678억 유로를 신기술 분야에 투자할 계획인데 이 가운데 69.9%를 융합신기술 분야에 할당하였다.

한편, 최근 디지털전자 분야에서 우리나라를 추격하고 있는 대만은 융합신산업에서는 먼저 앞서나가기 위해 '첨단산업 육성전략'을 펴고 있다. 최근 중국과 대만 간 경제교류가 활성화되면서 대만의 전통 제조업뿐만 아니라 가전,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 이르기까지 중국 본토로의 생산기지 이전이 가속화되고 있다. 대만정부의 첨단산업 육성전략은 새로운 산업 육성이란 효과 이외에 자국 내 산업공동화로 인한 독자 산업기반의 붕괴를 방지하고 고용을 촉진시키려는 복안이 들어 있다.

대만은 2006년부터 오는 2010년까지 나노기술, 로봇, RFID, 전자종이, 자동차 전장부품, 홈오트메이션 등 6개 산업에 약 1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주목을 끄

는 대목은 나노 기술에 대한 대만 정부의 관심이다. 대만 정부는 지원금의 60%가 넘는 6억 1,500만 달러를 나노기술분야에 최우선 순위로 지원할 예정이며 나머지를 나노기술을 제외한 5개 분야에 순차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대만이 급성장하고 있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 육성과 나노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품을 개발하여 우리나라와 일본을 앞서려는 정책이다.

(Source : (주) 폴리소프트)

3. u-Health 기술동향

“u헬스케어”가 차세대 커버전스의 키워드다. 이경수 헬스피아 대표는 융합산업의 대표가 u헬스케어인 이유를 말하고 있다. 하나는 헬스케어 분야가 최대시장, 최대산업이라는 점이다. 미국은 GDP 12조 달러 중 7분의 1인 14%가 헬스케어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IT가 산업을 견인했다. 결국은 정보혁명이 파이가 돼서 끌고 왔는데, 앞으로는 의료 혁명이 견인자가 될 것이다. 디지털의 마지막 남은 시장이 보수적인 의료분야라고 본다. 실제 해외 대기업들의 움직임을 보면, 대부분 헬스케어에 뛰어 들고 있다. 인텔은 디지털 헬스그룹을 만들어 환자정보시스템 등에 투자하고 있다. IBM은 대형컴퓨터 비즈니스에 초점을 맞춰 의료영상관리시스템과 병원 투약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개인병력 정보전달 시스템을 개발 중이고, 쉘컴은 5년 전부터 이동통신 칩을 기반으로 한 헬스케어 서비스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일본 히타치나 미쓰비시도 마찬가지다. 해외 이동통신업체인 버라이즌 등도 모두 헬스케어 서비스를 기획 중이다. 그런데 이 분야의 기술 진보와 산업 동향을 보면 핵심요소 기술은 네 가지다. 센서, 단말기, 분석, 피드백 서비스다. 현재는 센서 파트가 병목현상이 심하다. IT와 결합되면서 이동성이나 편의성, 낮은 전력소비, 통신 기능 등으로 인한 병목은 전세계가 비슷하다. 우리나라는 이동통신 단말기 부분에 강점이 있다. 또 서비스의 경우는 아이디어 시스템 싸움이어서 크게 문제는 안된다. 다만 센서가 완성된 이후에는 분석 분야가 가장 핵심이 될 것인데, 생체 신호를 받아 환자 맞춤형으로 가기 위해서는



의료 데이터 베이스가 중요한 가치를 갖게 된다.

이에 따라 국내 바이오 관련 업체와 연구소는 바이오센서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이다. 인포피아는 당뇨병 진단과 관리에 필요한 혈당측정 바이오센서를 개발하여, 국내는 물론 미국 수출까지 진행 중에 있다. 혈당 측정 바이오센서에 이어 이 회사는 심장질환 진단키트와 암 질환 진단키트 등을 개발 중이며, 2007년도 내에 개발 완료하는 것이 목표이다.

의료정보화시스템구축 사업 등을 전문으로 해온 케이엠에 이치도 당뇨 진단을 위한 바이오센서를 개발하였는데, 이 회사가 개발한 제품은 세계 최초의 무 채혈 연속 혈당 측정기로, 2007년부터 양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전자부품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등의 IT·BT·NT 연구소에서도 바이오센서 기술을 개발 중이며, 그 결과물로 이들 연구원의 특허 출원도 활발해 지고 있다.

바이오센서에 관한 특허 출원은 2000년까지 106건에 불과했으나, 2001년부터 현재까지 327건이 출원되는 등 급속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탄소나노튜브를 활용한 바이오센서 기술이나 산화아연계나노막대를 이용한 바이오센서 등 나노 관련 바이오센서 특허 출원도 활발해 바이오센서 기술이 IT와 BT·NT의 융합기술을 통해 개발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추세라면 우리나라가 기존에 우위를 점하고 있던 IT를 기반으로 BT와 NT를 접목한 바이오센서가 본격적으로 상용화될 것으로 전망 되고, 의료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물질 분석과 관련된 새로운 시장이 개척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비해 특허권을 조기 확보하려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2006년 12월 12일, 국내 벤처기업이 야외에서도 휴대형 혈액 진단기기 하나로 혈액정보를 검사할 수 있는 랩온어칩(Lab on a Chip) 기술을 개발했다.



랩온어칩은 손톱만한 크기의 칩과극소량의 샘플·시료만으로 실험실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든 NT·BT 융합형장치로, 이번 개발된 기술이 상용화되면 사고 현장이나 산간벽지 등 현장에서 곧바로 혈액 진단과 데이터 전송까지 가능해진다.

디지털바이오 테크놀러지는 휴대형 기기의 랩온어칩에서 혈액 등 시료와 시약을 일정비율로 혼합하여, 반응시키는 전처리 작업을 수행하는 핵심 기술을 개발하여 특허를 출원했다.

이로써 미세 유체 요소 및 신호 측정이나, 마이크로칩 필터 등과 함께 혈액 전처리 기술까지 개발함으로써 랩온어칩이 현장 진단 기기로 활용되기 위해 필요한 모든 특허기술을 확보하였고, 상용화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동안 국내외 대기업과 연구소에서도 랩온어칩을 이용한 진단기기 개발이 추진돼 왔지만 전처리 공정까지 작은 휴대형 장비에 창작할 수 있는 기술이 완성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회사는 이 같은 보유기술들을 결합해 누구나 손쉽게 극미량의 혈액만으로도 현장 및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메모리 스틱 형태의 ‘랩온어칩’을 출시키로 하고 최근 관련 상표등록을 마쳤다. 이와 함께 경기도 화성에 600평 규모의 공장을 건립, 양산을 준비 중에 있다.

디지털바이오 테크놀러지는 랩온어칩이 현장 검사나 개인 휴대 진단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실험실에서만 처리할 수 있는 생체 시료 전처리를 간소화해야하는 문제가 있었으나, 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대형 장비와 랩온어칩 내에 펌프와 밸브 등 복잡한 기기를 결합시켜 전 처리하는 경쟁사들의 방식과 차별화하였고, 또 향후 출시될 제품은 대형병원이나 전문기관의 복잡한 검사를 현장검사로 대체하면서 u헬스 시대를 견인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

2006년 11월 15일 헬스 케어 솔루션업체 이수유비케어는 SK텔레콤에 이어 KTF, LG텔레콤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자사의 모바일 헬스 케어 'MDoctor(엠닥터)' 서비스를 실시키로 했다고 발표하였다.

엠닥터 서비스는 휴대폰에 작은 외장형 측정기기를 연결해 혈당·보행계수 등의 건강 지표들을 측정할 수 있으며 이 결과를 휴대폰과 웹사이트 건강샘(www.healthkorea.net)에 저장하여, 누적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또 유·무선으로 가까운 지역주치의와 연계돼 보다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구현된 상태이고, 현재까지 국내 이동통신 3사 약 200여종의 단말기를 통해 엠닥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향후 이용 가능한 휴대폰 기종을 지속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2006년 9월 25일, 웨어러블 기반 헬스케어 제품의 핵심기술인 신호감지장치(TSB : Textile Sensing Band)가 국내 처음으로 개발되었는데, 한국봉제기술연구소는 전도성 섬유를 이용해 최근 TSB(Textile Sensing Band) 기술개발에 성공하여, 스마트 의류에 적용하는 시험에 본격 착수하였다.

이번에 개발된 TSB(Textile Sensing Band)는 심전도를 측

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극과 의류 연결부분이 100% 순수직물로 제작되었는데, 특히 금속사를 재료로 이용하기 때문에 기존 와이어 제품보다 손쉽게 스마트 의류를 제작할 수 있어 다양한 디자인 연출이 가능하다.

심장근육의 수축에 따른 활동 전위를 전달받아 호흡, 심박수 정보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신체의 움직임에도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다. 내구성, 유연성, 세탁성이 뛰어난 게 특징이다.

대구시는 2006년 10월 시작되는 웨어러블 기반 u헬스 시범화 사업에 이번 TSB(Textile Sensing Band)기술을 채택하여, 갈비뼈 주위 심전도 측정(Horizontal Mode)에 활용되고 있다.

한국봉제기술연구소는 현재 대구 북구와 서구의 건강증진센터 및 요양원을 대상으로 u헬스 사업의 대상자에 대한 3차원 인체계측을 마치고 2006년 10월 초에 스마트 의류를 생산을 시작했다. TSB(Textile Sensing Band)는 웰빙 시대에 맞춰 만성 질환자, 노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은 물론, 소방, 경찰, 군작전 등 위험업무를 위한 작업복에도 적용할 수 있어 응용분야가 무궁무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한국봉제기술연구소는 2005년부터 '프로젝트 스마트 G' 라는 이름으로 의류의 IT기술 융합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지금까지는 의료진단 기기를 유선 네트워크와 연결하는 방식의 e헬스케어가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휴대폰과 무선네트워크를 활용해 건강상태를 진단하고 의료진의 처치를 받는 모바일 건강관리로 발전하면서 u헬스케어 시대가 본격 도래하고 있다.

(Source : (주)폴리소프트, 대전전략산업기획단)